

고흥에 '공공형 키즈카페' 들어선다

사업비 56억 투입...2층 규모 신축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추진 놀이시설, 드론 체험 공간 등 구축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 조감도.

고흥군이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인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은 고흥읍 일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실내 놀이시설과 드론 체험프로그램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육아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면적 869㎡,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이다. 1층은 유아와 초등

론을 조정하며 장애물 피하기와 드론 축구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간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부모도 함께 쉬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공공형 키즈카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학생을 위한 놀이시설을 마련하고, 2층에는 드론 기초교육과 시뮬레이션 조정법을 익힌 후 직접 드



구례군, '지속 가능한 맥류 생산 심포지엄'

밀·보리 산업발전 연구성과 공유

구례군이 지난 8일 우리밀체험펜션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한국맥류연구회와 함께 '2025 지속 가능한 맥류 생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소-산업체-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밀·보리 산업의 발전과 식량 자급을 향상을 위해 맥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최신 연구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맥류 안전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과 식량 자급을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온고지신, 맥류 역사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최성호 구례밀영농조합법인

회장) ▲최근 맥류 주요 연구성과와 향후 R&D 계획(강진식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 ▲맥류 미래 농업·데이터 활용 디지털융합(김창수 충남대학교 교수) ▲맥류 미래농업·데이터 활용 스마트재배(박진기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관계자 간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구례에서 생산한 '백강' 밀로 만든 우리밀 자장면과 지역 제과점에서 '황금알' 밀로 만든 빵(바게트, 단팻빵, 파운드케이크 등)의 시식 및 기호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밀·보리 신종종과 가공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도 운영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맥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국내 식량 자급을 향상과 맥류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동일의 꿈, 높이 높이 날아라 -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가 지난 6일 광양을 서천군 공원에서 '동일의 영원 평화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청소년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 제공>

콘텐츠로 살아나는 원도심... '원츠 순천' 개최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남문터

순천시가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원도심 남문터 광장 일원에서 콘텐츠 축제 '원츠(Wants) 순천'을 개최하며 원도심 활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원도심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퐁이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며, 캐릭터 스포츠 이벤트와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육천면에서는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육천 포차와 야시장이 운영되며, 원도심 골목 상권과 연계한 배달존 운영을 통해 지역 음식과 상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활용해 콘텐츠를 연계한 교육사업도 진행한다. 교육지원청, 케나즈, 순천시가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회도 마련되며, 세대를 아우르는 도심심 문화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당도 뛰어난 고품질 곡성멜론 첫 출하

8월까지 온·오프라인 통해 판매 'K-곡성멜론' 해외시장도 공략

곡성군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사진)이 지난 9일 울둘이 첫 출하했다.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곡성멜론은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토양과 일조량, 큰 일교차 등 멜론 재배에 최적화된 지리적 환경 덕분에 당도와 품질이 뛰어나다. 여기에 육묘부터 수확, 선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더해져 고품질 생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곡성멜론은 오는 8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과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또한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현재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는 280여 명에 달하며, 총 116ha의 재배면적을 확보해 곡성의 대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곡성군은 곡성멜론을 '명품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동선별을 위한 포장재 구입비, 유통·물류비, 농수산물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수출물류비 대체지원 등 재배농가와 유통 기반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기존의 명품 브랜드를 넘어 'K-곡성멜론'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총 72t, 약 17만 달러 규모의 멜론을 수출하며 곡성멜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은 단순한 과일을 넘어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작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광양중앙도서관, 뮤지션 김반장 토크콘서트

광양중앙도서관이 오는 22일 오후 7시 청년 공감 토크콘서트 '김반장이 청년에게 고고함!'을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학생·직장인 등 평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야간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청춘, 나답게 살아보자!'를 주제로 뮤지션 김반장의 진솔한 이야기와 감성적인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뮤지션 김반장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파하며, 아프리카 레게 리듬에 한국적인 정서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

축해 왔다. 그는 '김반장과 워디시티', '김반장과 생기북등'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반장은 이번 콘서트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청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자신만의 음악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 또는 전화(061-797-386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키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5월호

2025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25 광주 방문의 해

무등산에 올랐다

- 무등산이 낳고 키운 생명과 문화
- 생명의 춤, 무등산의 봄꽃
- 무등길 위에서 무등의 정신 이어갑니다
- 무등산의 풍경과 서사를 담다: 사진작가 임채욱 '무등산'전

맛과 함께
봄 여행

**국립정원
흑두루미
시간여행**

회화의 전시

2025 하정웅 컬렉션 기획전
'단색화: 무한과 유한'전

예향 초대석

여성극극 1세대 배우, 발탁 명인
조영숙
"무대에서 눈으로 울어도 입으로는 웃겠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고미술, 현대예술 품은
광산구 최초 사립미술관
광주 광산구 동곡뮤지엄**

**화사한 전라남도
정원의 봄**

예향문화기행 @ '예술아지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호남의 누정 @ 에필로그
꿈은 선비정신과
풍류를 마주한 시간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
연상호 '계시록'의 믿음